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_어떻게 새 것이 가능한가?

성경말씀: 전1:1-11

전도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경험 집약,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결국 그런 것들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함, 인생 교훈: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 주지 못한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땅에 속한 지혜나 지식 혹은 재물,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참된 의무임을 알려준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연구, 발전, 부흥, 많은 발명품, 물건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의 내적 갈등을 만족시켜 줄까? < >, 어떻게 새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인간 세상의 기본 속성: 새 것이 없다

“변하는 것이 없으면 새 것은 하나도 없다.” 옛날에는 그것 가능,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각종 신약, 새 수술 기법, 원자력 발전, 우주 탐험 50년 전 닐 암스트롱 1969년 7월 20일 달 착륙, “이것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우리는 달 탐사를 간다. 도전을 직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다 새로운 것이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했을까?

전도서는 영적인 책, 인간과 인간 역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새 것은 없다.

1.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다(8): 그 내용(4-7), 인간의 출생, 해가 뜨고 짐, 바람이 불, 강이 되돌아감, 엄청난 수고, 말로 할 수 없는 수고, 그런데 자연 현상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험; 눈과 귀 불만족, 수많은 음악, 영화, 게임, 그런데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 새 것을 원한다(8). 그 이유: 모든 것이 지루해진다. 사도 바울 당시 아테네 사람들, 모든 것이 풍부하고 살만 했다. 새 것만 구한다(행17:21). 그래서 새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사용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또 새 것을 찾는다. 그래서 연예계, 영화계 등이 살아남는다.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제공한다.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양한 대화, 무엇을 얻었는가? 혹은 성취했는가? 유익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 없다.

2. 세상은 새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9-10). 9절은 역사가 반복됨을 뜻함 한 나라가 서고 망한다. 인간의 본질은 여전하다. 싸우다가 화평하고 다시 싸운다, 사실 새로운 발명품, 책은 것은 과거의 것들을 모으고 새롭게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품이란 자연의 비밀들을 찾아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실생활에 적용한 것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지식은 여러 사실을 집적한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이 나온다. 그런데 휴대폰을 쓰는 21세기 사람들이 지혜로운가? 아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 오히려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TV 영화 그리고 휴대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산 그래서 전도자는 묻는다(10). 새 것이라고 할 수 있 것이 이 땅에 있느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해양 기술의 발전, 지식의 집적, 예전에 가까운 섬들 발견한 것을 확장해서 조금 더 나간 것

3. 왜 이것들이 새롭다고 말하고 느낄까?(11)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모두가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나쁜 것은 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좋은 것, 유익한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다.

1. 인간의 본능

아담 이후 인간의 죄성 불변, 에티오피아 사람(렘13:23; 17:9-10)

하나님을 대적한다. 푸대접, 무시(롬1:21, 3:23).

노아/롯 당시의 악한 행위들, 가나안 족속의 악한 행위들 그대로 반복된다. 이유: 인간의 본성 불변

2. 인간의 역사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나 사람은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탈출, 값없이 어린양의 피로 구원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가나안 정복,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던 시대까지는 OK
그들이 죽자 곧바로 하나님 배반, 이교도들의 침략, 간청, 재판관, 지금도 부모 세대 모름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 결국 바빌론 포로, 돌아온 뒤 잠시 OK,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부패
심지어 하나님을 보고도 반역, 유랑 생활, 즉 계속해서 반역함, 역사의 반복
대한민국을 보자. 조선 시대 말 고종 등 지도자들의 부패, 백성의 말할 수 없는 고통
미국 선교사들 교육 의료, 복음, 개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1945년 8월 5일 해방,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여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 이승만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확립
그 뒤로 지난 70년간 부강한 국가, 이것을 이룬 세대들이 죽음,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려
함, 20세기 초로 또 돌아감, 고종과 비슷한 무능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념 팔이, 무상복지 인기
영합주의,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념만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반일 종족주의, 경제 회복,
어쩌면 그렇게 역사는 그대로 반복될까?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가는 망한다. 그리스 행,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베네수엘라
행, 더 나가면 북한 행이 된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망한다.

결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헛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 위에 있는 분이 새 것을 만드신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창조물은 새 것을 만들 수 없다. 새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해 위에 계신 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전12:1, 13-14).
즉 하나님이 새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새 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다.

1. 하나님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후5:17). 사람은 아무리 개과천선해도 불변
겉은 변할 수 있지만 속사람 변화 불가능,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에 의해
새 사람이 생겨나야 한다(골3:9-10; 엡4:23-24). 생각의 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전 세상이 새롭게 된다. 목표, 욕망, 소원이 변한다.
2.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새롭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사43:18-19), 국가의 개조, 민족의 개조
역시 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 지도자(영적, 정치적), 이대로는 안 된다. 구해야 한다.
3. 결국 하나님은 새 세상을 만드신다.
많은 사람들의 말(벧후3:4), 지금 있는 세상의 운명(벧후3:10-13).
하나님의 새 창조(계21:5), 이 땅에서 새 사람을 살면서 고통을 느낄 때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나라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새 세상이 영원히 온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단순히 해 아래에서만 살지 않고 해 속에서 산다.
그 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말4:2). 의의 해가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른다.
4. 새 세상이 오면 만족이 없는 우리의 눈과 귀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고전2:9).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것이다. 더 이상 불만족이 없다. 불안 초조 없다. 특히 감사한
것: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전복 우려 없다.
5. 결론 전도자의 질문(1:3):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마16:26)
우리의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이것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6. 그래야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전12:13-14를 기억하라.